

간화선, 대중화·생활화 가능하다

조계종 불학연구소 제1차 간화선 세미나... 안국선원·벽송선원 사례로 진단

간화선은 조계종을 대표하는 수행법이다. 안거마다 2000여 대중이 제방 선원을 찾아 정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찰마다 재가자를 위한 다양한 수행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전국 곳곳에서 재가자를 위한 선원과 재가자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이 진행 중임에도 정작 간화선이 대중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현종)는 10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개최한 제1차 조계종 간화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재가자 간화선 프로그램 운영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안국선원(선원장 수불 스님)과 벽송사 벽송선원(선원장 월암 스님)을 중심으로 신형적인 측면에서 간화선 수행법을 진단했다.

행사에서 수불 스님은 '안국선원의 간화선 수행과 지도방법'을, 월암 스님은 '벽송선원의 간화선 대중화의 비전'을 발표했다.

수불 스님은 1989년 부산 시내에 '금정포교당'을 열고 이후 안국선원을 운영하는 지금까지 20여 년간 재가자를 대상으로 간화선을 지도해왔다.

처음 신도들에게 전통적 간화선 수행방식으로 지도했던 스님은 신도가 계속해서 급감하는 참담함을 겪어야 했고, 결국 그 문제점이 신도가 아니라 가르치는 자신에게 있음을 발견했다. "답을 찾도록 해야 했는데 문제만 외우게 됐다." 이것이 수불 스님이 찾은 문제점이었다. 이후 스님은 선지식을 찾아 화두를 타오게 하고 실참을 지도했던 방법이 아닌 직접 문제를 제시하게 됐다.

번뇌 망상이 일어나도 무시하라고 일렀고, 화두가 들렸는지 불안해하는 사람에게는 일약의 비유, 거문고의 비유 등을 들었다. 알약을 먹으면 그대로 있는지를 묻고, 거문고 줄고르듯이 하라고 일렀다. 신도들에게 스스로 믿음을 내고 수행을 통한 이익을 느끼게 하니 그들은 저절로 잘 하게 됐다.

안국선원에서의 간화선 중심의 1주일간의 집중수련이 재가자들 사이에 입소문으로 돌면서 참선의 맛에 목말라하던 많은 이들이 수불 스님을 찾았다.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벽송사 벽송선원장 월암 스님.

수불 스님은 "법문은 조사선의 입장에서 하면서 수행은 간화선으로 하라는 것은 잘못"이라며 "정확한 선학적 근거 위에서 결여된 동중(動中) 수행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간화선 대중화를 위해서는 화두참구를 지도할 지도자 양성이 시급하며, 이에 앞서 눈 밝은 선지식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종단차원에서의 간화선 홍보를 위한 수행공간과 연구원, 수행점검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월암 스님은 2006년 9월 제1회 벽송선회를 시작으로 3회에 걸친 벽송선회와 간화선 실참향상과정, 재가선회 등을 열었다. 특히 2008년 11월 개최된 제1회 재가선회에는 재가자 100명이 간화선 실참을 위해 벽송사를 찾아 8일간 정진했다.

스님은 "이론과 실참의 결수를 통해 정견을 획득하고 견성오도(見性悟道) 광도중생(廣度衆生)함을 목적으로 벽송선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선회를 통해 논의된 간화선 수행지침을 설명했다.

간화선 수행지침은 △일대사인연을 깨달아 생사대사를 해결하겠다는 무상발심(無常發心) △연기, 공, 무아 등의 도리에 정견을 갖춘 중도정관(中道正觀) △선지식을 찾아 지도를 청하는 선지식참문(善知識參問) △선지식이 참문자의 근기에 맞춰 화두를 전하는 화두결택(話頭決擇) △화두를 간절히 참구하는 일념참구(一念參究) △순역경계에서도

항상 화두가 여전한 순역(順逆) 각하는 운수행각(雲水行脚) △동정일어(動靜) · 풍중(夢中) · 오애(痲)에 일여(一如)한 삼매현전(三昧現前) △선지식을 찾아 공부할 점검받는 점검(點檢) △선지식이 깨달음의 경계를 점검해 인가하는 인가(認可) △깨달음 후 보현행원을 실천하는 수입입전(垂手入塵) △교육 등이다.

월암 스님은 "화두를 참구할 의식조차도 중생의 무명에 의한 미혹이라 경계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화두를 참구하는 간화선 수행은 번뇌로서 번뇌를 다스리는 수행으로 미혹으로써의 의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의식"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잘못된 간화선 풍토를 호되게 비판했다.

월암 스님의 장군 죽비 같은 질책은 일부 선수행자들이 교학을 폄하하고 책 보는 행위를 금기시해 선학에 대한 정견을 세우지 못한 채 무지선(無知禪, 暗證禪)에 빠지고 있다는 말로 시작했다.

이러 스님은 "선교결구서서 정견을 확립해야 한다"며 "정견의 확립을 위해서는 먼저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 동시에 실참을 통해 의(의식)적인 깨달음을 먼저 얻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말 없이 앉아만 있는 것이 제대로 된 수행법으로 왜곡된 현실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월암 스님은 "현재의 간화선 풍토는 말로는 활발(活潑)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면서 실제로는 대해

사가 비판한 묵조사선(默照邪禪)적 행태를 연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님은 "동정수행의 병수가 강화돼야 한다"면서 "말로는 행주좌와를 외치면서 앉음의 편의주의에 매몰되는 간화선 본래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행자의 인격 문제도 언급했다. 월암 스님은 "현재 불교는 출가수행자는 수행이력과 인격이 일치하지 못하고, 재가불자는 불교적(언기적) 인성관이 빈약하다"면서 "깨달음과 실천이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는 기형적 신앙형태를 연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하루 수행하면 하루 수행한 만큼 행복해져야 한다. 해행상(解行相應)으로 수행과 깨달음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암 스님은 "간화선 제일주의도 경계해야 할 병통"이라며 "원용적 수행태도를 정립해 원통불교(圓通佛敎)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불 스님에 이어 월암 스님도 간화선 교육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 등 종단 차원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스님은 "재가와 출가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기 위해서는 재가 선(禪)포교사를 지속적으로 배양하고 출가자를 위해서는 선림원(禪林院) 등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구보리와 화화중생을 동시에 실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월암 스님은 "참선 수행자들이 견성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깨달음 제일주의에서 탈피해 모든 생명을 살리고 섬기는 보현행원의 구원이자 되어야 한다"면서 "비지산운(悲智雙運)으로 보현행원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두 스님은 실제 대중들에게 간화선을 지도하면서 습득한 노하우를 진솔하게 공개해 행사장을 가득 메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수불·월암 스님의 발표 내용에는 동적 공부가 곁여 있다는 등 같은 의견도 있다. 두 스님의 발표는 신행으로서 간화선 대중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확실한 지침이 됐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삼천배 올리며 불사 원만성취 기원

조계사 신도들 17일 용맹정진... 불사금 2000만원도 조성

씨늘한 가을바람이 몰아치는 10월 17일 저녁 7시. 파란색 단체복을 입은 조계사 신도들이 도량을 가득 메웠다.

조계사 불교대학이 주관한 창건 99주년 기념 '조계사 중창불사 원만성취 기원 3000배 용맹정진' 현장은 조계사주지 세민 신도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용맹정진에 앞서 세민 스님은 "절 수행은 삼보에 대한 예경과 함께 몸과 마음을 닦는 수행으로 절 수행 자체로도 수승한 공덕이 있다"며 "무량한 공덕을 쌓는 여러분들의 행복을 축원한다"고 격려했다.

조계사 이대각심 신도회장은 축



조계사 대웅전을 가득 메운 신도들이 3000배의 결의를 다짐하고 있다.

사에서 "3000배 용맹정진은 불법의 진리와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는 것이다. 도반들은 함께 사랑과 용기를 나누며 무사회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3000배 용맹정진에 앞서 세민 스님은 참가 신도들과 함께 108배를

올렸다. 1000여 명의 신도들은 잠시 호흡을 고르고 난 뒤 조계사 불교대학생들의 집전에 맞춰 본격적인 용맹정진에 들어갔다. 징소리, 북소리, 목탁소리에 맞춰 석가모니불 염불을 하며 1배, 1배 올리며 참가자들은 불퇴전의 의지로 흔들림이 없었다. 땀은 흘러도 서로를 바라보는 표

정은 더욱 밝고 평온해졌다. 신도들은 이날 행사를 통해 약 2000여 만원의 불사금을 조성했다. 중창불사의 원만성취를 기원하며 18일 새벽 3시 30분까지 진행된 3000배 용맹정진은 회향 108배로 마무리됐다.

이상언 기자

아동성폭력 예방 캠페인

나무여성인권상담소, 18일 조계사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일생을 불구로 살게 한 참혹한 '조두순 사건'의 파장으로 성폭력 범죄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논란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나무여성인권상담소(소장 김영란)는 10월 18일 조계사 경내에서 아동 성폭력 대응책 캠페인,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진행된 아동성폭력추방캠페인은 조계사 어린이·청소년 후원 어머니회 '선재법당'과 함께 진행됐다.

성폭력 반대 서명운동, '조두순 사건' 전개와 결과 홍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정의 등을 홍보하고 교육했다.

이상언 기자



아동 성폭력 대응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

신행게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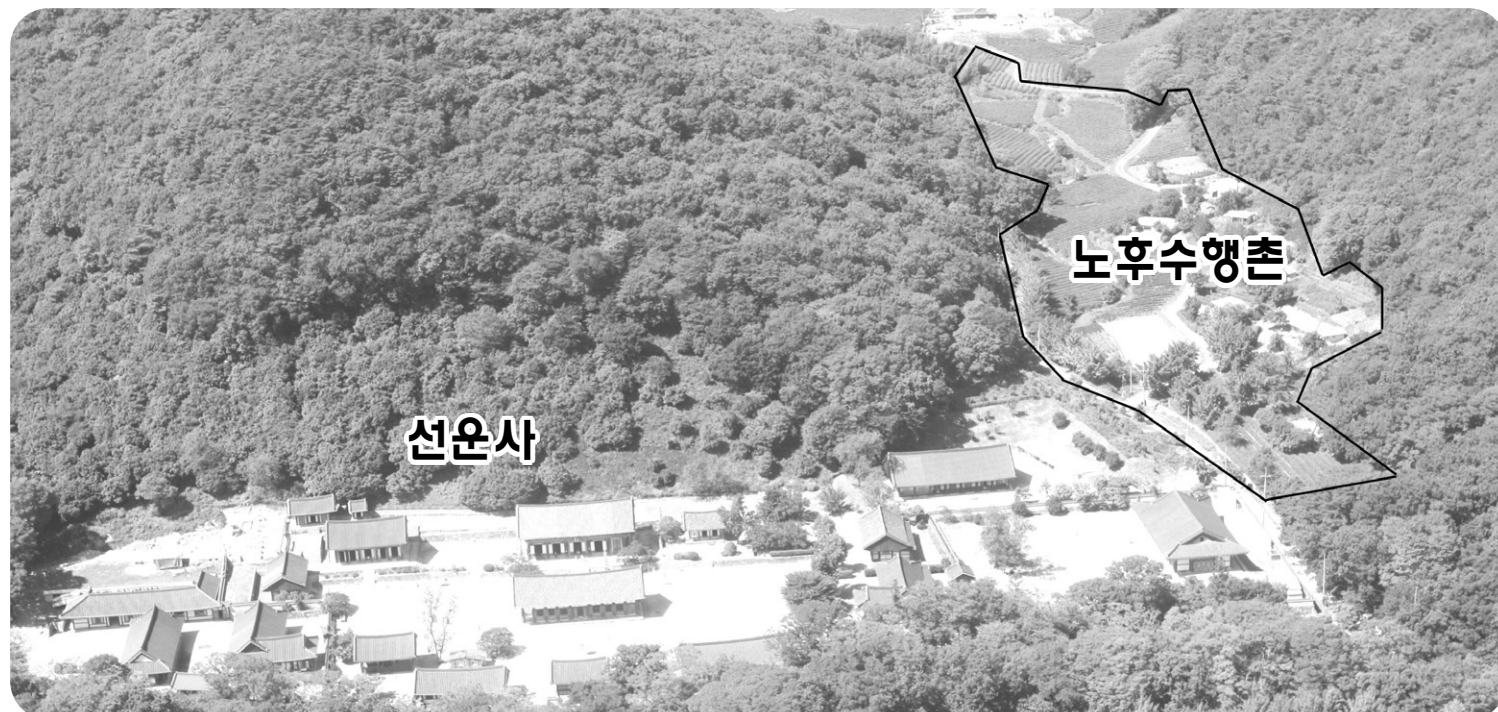
- **대법처경 강설과 위빠사나 수행=**서울 흥원사는 11월 6일~12월 25일 매주 금요일 2~4시 대법처경 강설과 위빠사나 수행을 실시한다. 성도 스님이 수행 지도하며, 동참비는 10만원이다. 한편 매주 금요일 1~5시에는 자율수행도 진행하고 있다. (02)2063-2233
- **주아용맹 참선법회=**부산 해운정사는 11월 1~4일 주아용맹 참선정진 대법회를 봉행한다. 동참

금은 재가자 4만원, 스님은 무료다. 4월 회향식과 함께 진제 스님을 증명 및 계사로 모시고 재가오계수계식도 개최한다. 참선에 뜻이 있으면 누구나 참가가능하다. (051)746-2256

● **한마음선원 한마음아버지마당=**안양 한마음선원은 11월 21일~12월 19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안양 한마음과화원 국제회의실과 선원 경내에서 '나

로부터 시작하는 가족의 행복' 한 마음아버지마당을 실시한다. 행사는 화일놀이를 통해 세상을 바로 보기, 부모, 아내, 자식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에서 가족인연 돌아보기, 과거속의 나, 나와 가족의 능력과 가능성 등을 찾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수강료는 10만원으로 11월 17일까지 접수받으며 선착순 40명 접수받는다. (031)471-6926

선운사 승려노후 수행관 설계 공모전



평생 수행과 교화에만 전념하신 노스님들의 안락한 주거와 수행을 위한 자연친화형 노후 수행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설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공모개요

- **공모주제: 선운사 승려 노후수행관 (수행마을)**
- **공모내용:** 인근의 선운사와 자연환경을 고려한 자연친화형 전통한옥(기와, 황토, 초가 등)으로 노스님들의 주거와 수행, 간병을 고려한 공동체 거주지로 가구당 1~2인이 거주하는 10~20채 및 6~7인 거주 다가구형 공동시설이 포함된 전통 한옥마을.
- **대상지역:**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517번지 일대 (약 20,000㎡, 6,000평)
- **행사주관:**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 **응모자격:** 자연친화형 한옥 건물과 승려 노후 수행관에 관심있는 모든 국민.
 - 대학(원)생, 해당분야 대학교(원) 부설연구소 또는 유사연구기관
 - 건축사무소, 엔지니어링 업체, 일반인 등
- **일 정**
 - **응모 신청:** 2009년 10월 22일 ~ 11월 15일(일) 12:00까지
 - **현장 설명:** 2009년 11월 15일(일) 14:00
 - **작품 접수:** 2010년 1월 30일(토) 13:00까지
 - **입상작 발표:** 2010년 2월 10일(수) (불교계신문 및 선운사 홈페이지)
- **응모신청**
 - **접수방법:** E-mail 선운사 (<http://www.seonunsa.org>)
- **시 상**
 - **대 상:** 상장, 상패, 상금 700만원
 - **우 수 상:** 상장, 상패, 상금 300만원 (입상자에게는 향후 선운사 승려노후수행관 현상설계 참여권 부여)